

장성군 민원실 방역, '시 방역로봇'이 맡는다

자율주행 이동하며 플라즈마 방출...바이러스 박멸 효과 탁월 "민원인·담당 공무원 건강까지도 안전하게 지켜줄 것 기대"

장성군이 군청 민원실에 인공지능(AI) 방역로봇을 설치했다.

방역로봇은 자율주행으로 민원실 곳곳을 이동하며 '플라즈마'를 방출한다. 플라즈마는 이온, 양성자, 전자 같은 전하를 띤 입자들이 기체처럼 섞여 있는 형태를 말한다.

플라즈마에서 발생하는 오존을 저농도로 활용하면 바이러스나 병원균을 효과적으로 박멸할 수 있다. 탁월한 살균력을 지녔으면서도 인체에는 무해해 의료현장 등에서 폭넓게 사용된다.

주민 김모 씨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어 그간 민원실 방문을 망설였는데, 방역로봇 덕분에 안심하고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방역로봇이 민원인의 물론, 담당 공무원의 건강까지도 안전하게 지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역로봇이 가동되지만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등 개인방역수칙은 계속 지켜야 하며,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한편, 장성군은 최근 민원실 내부 정비를 통해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마쳤다. 올해 하반기에는 양질의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적

분에 안심하고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방역로봇이 민원인의 물론, 담당 공무원의 건강까지도 안전하게 지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역로봇이 가동되지만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등 개인방역수칙은 계속 지켜야 하며,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한편, 장성군은 최근 민원실 내부 정비를 통해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마쳤다. 올해 하반기에는 양질의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적



자 친절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장성=김수권기자

나주시, 2022년도 8월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납부 안내

나주시는 2022년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5억9300만원과 사업소분 주민세 12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 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나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세대별 1만1000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 주민세 대상은 7월 1일 현재 나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기본세액(5~20만원)과 연면적 세율을 합산한 금액을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부터 신고·납부로 변경된 사업소분 주민세에 대한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납부서를 사전 발송했다.

납세자는 송달된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 신고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방문, 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080-339-0365),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나주=송준표기자

담양군, 문화 다양성 프로젝트 '고향에 보내는 편지' 참여자 모집

담양 거주 외국인 대상 영상 제작

(재)담양군문화재단은 담양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서로 다름의 가치를 인정하고 상생 발전의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한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 '고향에 보내는 편지'를 추진한다.

'고향에 보내는 편지'는 코로나 19로 인해 이웃과 지인, 떨어져 사는 가족들의 안부가 소중해지는 요즘, 먼 고향의 안부가 절실히 그리운 사람들이 편지와 함께 작은 선물을 보내고 이

를 통해 수집한 사연과 의미를 전사로 담아 공유함으로써 서로 다름을 인식하고 동질감을 회복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재단은 프로젝트 참여자와 개인 영상 촬영 일정을 조율하고 보내고 싶은 선물의 사연과 함께 주요활동을 촬영해 영상과 사진, 인터뷰 내용을

고향에 보내는 편지 유튜브, 블로그 등에 기록하고 11월 중 영상 전시를 운영할 계획이다.

'고향에 보내는 편지' 프로젝트는 8월 21일 일요일까지 온라인 구글 폼 신청서(bit.ly/고향에보내는편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문화재단 문화기획팀(070-4186-0146)으로 문의하거나 문화재단 누리집(http://www.damyang.or.kr)을 참조하면 된다.

담양=박종영기자

곡성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도농 상생 업무 협약 체결

곡성군이 지난 10일 곡성군청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본부장 이정욱)와 '도농 상생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협력을 약속했다. 먼저 로컬푸드 소비 확대를 통해 지역 선순환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도농 상생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에 함께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이외에도 지역 농산물 구매, 농가 체험 활동을 통한 일손 돕기, 재해 위기 시 대응 협력, 양 기관 사업 및 제도 홍보 등이 협약 내용에 포함됐다.

곡성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단과 지속적인 상생 관계를 도모할 예정이다. 공단 직원들이 곡성군의 농산물을 구매하고자 할 때 필요한 농가를 연계해 주고, 공단이 진행하는 도농 상생 프로그램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이날 협약식에서 "농업인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 이정욱 본부장은 "이번 MOU 체결이 지역 자원 공동 이용 방식을 구축하고, 농업인과 소상공인이 서로 간 호혜적 공존 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해영기자

화순군 아동청소년의회 출범 26명 위촉...12월까지 활동

제4대 화순군 아동청소년의회가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출범했다.

화순군은 1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4대 화순군 아동·청소년의회 의원 26명을 위촉하고 의장단,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의장은 박재우(능주동 1년) 의원, 부의장은 주은제(화순중 2년) 의원이 선출됐다. 교육문화, 안전복지, 아동권리위원회 3개 상임위도 구성했다.

제4대 화순군 아동청소년의회의 임기는 올해 12월까지다. 의원들은 임기 동안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니 무척이나 떨리고 흥분된다"며 "임기 동안 많은 것을 배워 화순군을 이끌어 가는 훌륭한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아동청소년의회의 목소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의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아동이 꿈을 꾸고 꿈을 이룰 수 있게 아동·청소년 친화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무더운 여름, 섬진강 수달생태공원에서 시원하게 즐겨요"

구례군, 섬진강 수달생태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28일까지 개장



구례군은 여름철을 맞아 8월 28일까지 섬진강 수달생태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장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섬진강 수달

생태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장은 매주 월요일 및 우천 시를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수질관리 및 안전을 위하여 50분 가동, 10분 휴식한

다.

어린이들이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워터 슬라이드, 워터 드롭 등 조합놀이대와 화상실, 그늘막 등 이용객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야간에는 공원 내 생태화원에 설치된 경관 조명이 구례만의 특색 있는 야간 볼거리를 제공한다.

김순호 군수는 "어린이 물놀이장에서 가족과 함께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수질관리 및 시설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섬진강 수달생태공원은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에 대한 다양한 생태정보를 제공하고 59종의 다양한 식물을 학습하고 관찰할 수 있으며, 자연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자연 생태체험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조성되었다.

구례=박진호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남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관